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옛날 어느 나라에 미다스라는 왕이 살았어요.

미다스 왕은 황금을 많이 가진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왕은 신들을 잘 받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보살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  
지요.

백성들은 왕을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어느 날, 미다스 왕의 궁전에서 신들의 음악 대회가 열렸어요.

미다스 왕은 심사 위원장을 맡게 되었어요.

여러 신들이 나와서 저마다 솜씨를 뽐냈어요.

태양과 음악의 신인 아폴론과 목축의 신인 판이 결승에 올랐어요.

이들의 솜씨는 워낙 뛰어나서

미다스 왕은 누구에게 일등을 줘야 할지 몰랐어요.

‘아폴론이야 원래 잘했으니까 이번에는 판에게 일등을 줘야지.’

한참을 고민하던 왕은 판의 손을 번쩍 들어 주었어요.

아폴론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미다스 왕, 그것도 귀라고 달고 다니시오?

어디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시지!”

아폴론은 이 말을 마치고 웅하니 사라져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미다스 왕은 깜짝 놀랐어요.

글쎄, 왕의 귀가 당나귀 귀로 변해 있지 뭐예요!

“아이고, 이를 어째?”



미다스 왕은 울고 싶어졌어요.

“폐하, 무슨 일이십니까?”

신하가 방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아, 아니다. 절대 들어오지 마라.”

‘내 귀를 보면 모두 깔깔 웃어 대겠지?’

왕은 아무도 모르게 수건으로 머리를 둘둘 감아 당나귀 귀를  
감쪽같이 숨겼어요.

그런 다음 신하에게 말했어요.

“왕관이 작아서 머리가 아프구나. 아주 큰 왕관을 만들어 오너  
라.”

미다스 왕은 커다란 새 왕관을 쓰고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

“이제부터는 절대 왕관을 벗지 말아야지.”

미다스 왕은 잘 때도 왕관을 쓰고 잤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난처한 일이 생겼어요.

왕의 머리가 너무 길어서 깎아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미다스 왕은 고민고민하다가 이발사를 불렀어요.



“사실, 내 귀는 당나귀 귀다. 이걸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되느니라.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너를 사형에 처하겠다.”

“폐하, 절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미다스 왕의 귀를 보는 순간,

이발사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발사는 미다스 왕의 머리를 깎을 때마다 죽을힘을 다해 웃음을 참곤 했어요.

자다가도 생각하면 우스워서 혼자 킁킁 웃었지요.

“아니, 당신 왜 혼자 그렇게 실실 웃어요?”

아내가 물어도 이발사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답답해서 가슴이 뻥 터져 버릴 것만 같았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자, 이발사는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참다못한 이발사는 어느 날 집 근처의 동굴로 달려가 소리쳤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러고는 동굴 입구를 돌로 꼭꼭 막아 버렸어요.

그제야 이발사는 속이 시원해졌어요.

물론 병도 말끔히 나았지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언제부터인가 동굴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 소리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면 더 크게 들렸어요.

그건 바로 이발사의 소리를 먹고 자란 갈대들이 내는 소리였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웃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래.”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나라에 소문이 짹 퍼졌어요.

이 소문은 마침내 미다스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이런, 께쌌는 것! 당장 이발사를 잡아 오너라.”

미다스 왕 앞에 잡혀 온 이발사는 자기가 한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러고는 끝으로 이렇게 덧붙였지요.

“폐하께서 그토록 큰 귀를 가지신 것은

백성들의 소리를 더 잘 들으라는 신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미다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왕은 궁전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왕관과 수건을 벗었어요.

“정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네!”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맞다. 내 귀는 당나귀 귀다.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 큰 귀로 백성들의 말을 더 잘 들을 생각이다.”

“폐하, 만세!”

그 뒤, 백성들은 전보다 더 미다스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